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혁신신약 개발 협력 모색

정부의 제약·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과 국내 산업계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관 협력에 뜻을 모았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15일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산 혁신신약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한금융, '그냥드림' 사업 지원 봉사활동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서울광역시기초식품복지지원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그냥드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보건복지부가 신한금융그룹,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사랑의열매와 함께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급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다. /신한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 대구FC와 후원품 전달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대구FC 선수단과 함께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후원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대구 북구에 소재한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이번 사업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M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하는 '대구FC 골 누적 기부금'을 활용해 기획됐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스포츠 구단 대구FC도 함께했다. /iM사회공헌재단



기정원, 제조기업 AX 전환 지원 나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AX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6년 AX코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정원 AX코칭단은 제조데이터와 AI 분석 경험을 보유한 제조혁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인력으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AI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전략 수립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출범했다. /기정원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진주지청장 이강욱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 홍인영 △재외국민보호과장 장동울

부음 ▲홍은정씨 별세, 신하순(서울대 동양학과 교수)씨 부인상, 강정화(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씨 자녀상, 신수지·신수환씨 모친상 = 1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오후 1시 30분. 02-2072-2020

GS, 정부와 청년 AI 실무인재 양성... 120명 현장교육

52g 리부트 캠프 7월 가동
서울·여수서 520시간 과정
생성형 AI·디자인씽킹 실습

GS그룹이 정부인재양성사업과 연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실무형 청년 인재 육성에 나선다.

GS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 '52g 리부트 캠프'를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52g 리부트 캠프는 취업 준비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과 여수에서 총 120명을 선발해 520시간의 교육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GS그룹 혁신 커뮤니티인 '52g'와 기업교육 전문기관 캐럿글로벌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운영한다. 52g는 GS그룹 해커톤과 230건 이상의 현장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GS 임직원들이 지난해 9월 8~9일 서울 강남구 웨스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회 GS그룹 해커톤'에 참가하고 있다. /GS그룹

쌓은 경험과 인프라를 교육 과정에 반영한다.

교육 과정은 디자인씽킹, 생성형 AI 활용 실습, 실무자 멘토링, 산업현장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

은 AI 도구 활용과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설계 등을 단계별로 경험하며 실제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게 된다.

GS는 자체 AI 플랫폼 '미소(MIS

O)'를 활용한 실습 환경도 제공한다. 참가자들이 직접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며 산업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캐럿글로벌은 교육과정 설계와 학습 운영을 맡는다.

GS는 교육 종료 이후에도 포트폴리오 보완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취업 준비와 사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52g 리부트 캠프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GS 관계자는 "AI 기술이 전 산업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AI 활용 역량과 문제 해결 경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GS는 현장 중심 AX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 전기차 구독·체험 마케팅 강화 농촌 빈집, 지역소멸 해법으로 띄운다

360일 플랜에 EV 4종 투입
아이오닉 5 N 월 30만원 할인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브랜드 경험과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한 고객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는 차량 구독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에 장기 전기차 이용 상품인 '360일 플랜'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360 플랜'은 위약금과 약정기간, 선납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 30일 단기 구독 대비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 상품이다.

대상 차종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5 N 등 4종이다. 일반 렌터카에서 접하기 어려운 풀옵션급 고사양 차량으로 마련했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360일 플랜 이용 시 30일 구독 대비 최대 월 14만원, 코나 일렉트릭은 최대 월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은 월 30만원 할인 혜택이 적용돼 월 139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현대차는 전기차 기술력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기차 동호회 회원



현대자동차가 지난 13일 전기차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EV'er-land 2026에 마련된 아이오닉존.

원들을 대상으로 'EV'er-land 2026'을 개최했다. 전기차 동호회 회원 200명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현대제네시스 전기차 14종의 시승 프로그램과 체험 이벤트를 경험했다.

행사장에서는 아이오닉 전기차의 V2L(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레이싱 시뮬레이터 등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ysw@

송미령 장관, 경북 영양 현장 방문

정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각지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더해 빈집 재생을 제시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의 한 모뎀 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빈집 방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양 연당리 마을에서 귀촌인의 집과 외국인근로자 숙소, 한옥게스트하우스, 한옥카페 등을 둘러봤다. 이곳은 빈집정비 정책을 통해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연당리 마을의 빈집 아홉 동은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연간 2만5000여 명이 방문하는 빈집재생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중 한옥카페 '연당림'의 경우 귀촌청년 창업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지역 지원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활용해 메뉴를 개발하고 마을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2024년도에 1억5000만 원의 연매출 실적을 냈다.

송 장관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기본소득 등 농촌정책이 영양군을 비롯한 소멸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동국제약, 전기식 모델에 신혜선 발탁

마이핏 등 뉴트리션 브랜드 강화

동국제약이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을 펼친다. 동국제약은 건강기능식품 선속 모델로 배우 신혜선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우 신혜선은 인기 스타로 대중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와 건강미를 갖췄다. 특히 동국제약의 뉴트리션 브랜드 '마이핏'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다.

동국제약은 '내 몸에 딱 맞는 맞춤형 건강설계'에 중점을 두고 마이핏V, 마

이핏B, 마이핏S 등으로 마이핏 제품군을 구축해 왔다. 또 동국 국민건강 프로젝트, 고품량 분말형 비타민 엘라나 C플러스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탄탄한 연기력과 폭넓은 캐릭터 소화력을 바탕으로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한 신혜선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동국제약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혜선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접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신세계, 임직원 대상 역사인식 교육 실시

스타벅스 매장 22일 조기 종료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부문 계열사 임원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세계그룹 사내연수원인 신세계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과 이마트 등 이마트부문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해 역사 인식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점검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코리아 매장 파트너들은 오는 22일 교육을 받는다. 이날 전국 매장은 오후 3시에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별로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모든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국내 1호점 개점 이후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계열사

대표들과 별도 교육을 받는다. 정 회장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마트부문 다른 계열사 직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온라인 이러닝 방식으로 같은 교육을 수강한다. 우선 대상은 본사 근무자와 현장 관리자다.

역사 인식 교육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는다. 강연에서는 1950년대 이후 주요 근현대사 사건과 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룬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마케팅 프로세스도 정비한다.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바탕으로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기획 단계부터 역사, 기념일, 정치, 재난, 군사, 젠더, 폭력, 혐오표현 등 사회적 민감 사안을 점검한다.

/김서현 기자 seoh@